적십자사, 무료 급식소 개소 "매주 화·목 기다려져"

독거노인·자립준비청년 등
지역 취약계층 주 2회 중식 제공
사회적 고립 예방·결식 감소 목적
"임금님 수라상 차리는 마음으로"

'적십자 무료급식소 개소식'이 15일 광주 북구 임동 광주봉사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용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시의회 의장, 문인 북구청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재홍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양배 기자

광주 지역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노인층의 결식 감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던 무료급식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광주봉사관 봉사원 및 임직원들은 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으며 무료급식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들은 흐뭇해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15일 오전 북구 임동 광주봉사관에서 '적십자 무료급식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허정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등 내외빈과 적십자 봉사원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적십자 무료급식소는 지역 내 독거노인, 노인 단독세대, 자립준비청년 등 돌봄 세대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 또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상담을 통해 1인 가구가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봉사관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은 물론 광주노인회와 연계해 봉사관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장 2곳에서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급식소에 도착한 노인들은 1층에서 번호표를 부여 받아 대기 장소로 이동해 식사 시간 전까지 스마일힐링체조, 노래교실, 요리교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날 1층 대기실에서는 영상서포터즈 봉사회의 음악봉사가 진행됐고, 2층 대기실에서는 천연재료로 세탁세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2층에서 대기하던 노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룹별로 봉사원들과 함께 세제를 만들었다.

임성신(70) 봉사원은 "대기시간 동안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참여자들의 반응이 모두 좋았다"며 "20년째 봉사활동을 참여하며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차복임(82)씨는 "오늘이 세 번째 방문이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며 "세탁 세제를 함께 만들며 대화도 나누고 세제도 집으로 챙겨갈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즐기던 이들은 자신의 번호표가 호명되면 순차적으로 식당에 들어섰다. 식당 안에도 봉사원들이 대기해 음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왔으며 배식 봉사는 개소식에 참여한 내빈들이 직접 진행했다.

음식 준비는 단체 급식 조리 경험이 있는 봉사원을 중심으로 20명의 조리원들이 만들었으며 조리장은 식사하는 이들을 찾아가 음식 소개와 함께 식사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했다.

고윤순(65) 무료급식소 총괄조리장은 "음식을 준비할 때 비록 한 끼를 제공하지만 임금님 수라상을 차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돼 너무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점례(68)씨는 "음식을 준비하는 조리원들의 정성이 느껴져서 그런지 집에서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다"며 "모든 봉사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재홍 대한적십자사가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십자 무료급식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주변 이웃들과의 유대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무료급식소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봉사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광주 도시철도 공사현장서 싱크홀… '복구 완료'

흙막이 벽 이탈로 토사 붕괴
3시간여만에 통행재개 조치

광주 동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했으나, 관계당국이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1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께 지산사거리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서 지반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꺼진 부분의 규모는 가로 0.9m, 깊이 1.7m다.

이에 관계당국은 즉시 해당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3시간여만에 안전 조치를 완료, 통행을 재개했다.

당국의 원인 조사 결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지탱하기 위해서 설치한 토류벽(흙막이 벽) 일부가 이탈해 주변 토사가 붕괴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오전 지산사거리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서 지반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동구 제공

윤준명 기자

'채용 비리' 광주 낭암학원, 보조금 8억여원 중 150만원만 반납

"재정기여자 모집 검토" 촉구

광주 동아여중·여고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낭암학원이 교사 채용 비리로 인한 보조금 환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학교법인 낭암학원은 산하 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과 법인 실장이 1000만원~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 채용을 저지른 사실이 지난 2017년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학원 이사장은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부정 채용된 교사 6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임용이 모두 취소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8억2000여만원 반납을 학원 측에 고지했다. 그러나 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해당 금액을 학원 측이 납부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학원 측이 발생한 수익만으로 보조금을 상환하라는 판시였는데, 이는 학원이 보조금 완납을 하는데 있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은 학교 법인이 보유한 3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아닌, '발생한 수익'만으로 상환을 하게 만든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학원이 2025년까지 반납한 금액은 연 1회 150만원에 불과했다.

단체는 "시교육청이 소송을 통해 공공재정 환수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학교법인에 유리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시교육청은 교육 비리 근절을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낭암학원 측에 법인 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 마련과 보조금 반납을 위한 재정기여자 모집 등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유철 기자

광주 농민들 "나락 저가 수매 RPC 해체해야"

나락값 타지보다 낮게 수매

광주 농민들이 광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광주통합RPC)을 대상으로 나락값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통합RPC 앞에서 농민회 영농발대식을 열고 "나락 저가 매입하는 광주통합RPC를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농민회는 "매년 광주에서 수확된 나락값은 타 지역보다 조곡 40㎏ 한가마당 2000~3000원 가량 낮게수매하고 있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나락값 보다 낮게 책정해 벼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곡처리장의 경영특성상 싼가격에 원료곡을 매입해야만 경영실적이 좋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락값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통합RPC대표나 14개농협 조합장들은 이익을 창출할 경우 농가에게 배분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어느순간 순이익을 각 농협들이 나눠가지고 있다"며 "타 지역보다 싼 가격으로 광주통합RPC에 수매한 농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게 당연한 절차다"고 주장했다.

통합RPC는 지난 2008년 출범해 농협 광주본부 산하 14개 농협이 공동 출자했다.

이정준 기자

신안 해상 불법 김 양식장 운영 어업인 무더기 적발

신안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어업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목포해경은 특별단속을 통해 신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 시설물을 운영한 어업인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적발된 어업인들을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선박 항행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김 양식 시설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해왔다.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양식업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단속을 통해 해양법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광주 8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차량엔 '유서'

광주 북구 소속 공무원이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에 나섰다.

A씨는 광주 북구청 소속 8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차량 안에 있던 핸드폰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정승우 기자